

옛 사람 시몬, 새 사람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사60:1-3, 벧전2:9-10

정윤돈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하시므로 왕처럼 잔치인생, 파티인생이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날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듣는 말씀이 모두 성취되게 하여주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직 주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인본주의로 허만처럼 망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오직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속에서 오직 예수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베드로전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AD.63-6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는 로마의 네로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 박해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이 네로황제는 AD.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에 대한 범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로마의 황제였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 후서를 적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황제에 의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전승이 되어있다. 이러한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것이 '퀴비디스라는 영화이다. 네로황제는 배교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악독한 자였고 본인 자체도 거의 영신병자 수준이었다. 사실은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물을 흘리면서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말년에 모든 초대교인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순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역을 했을 때와 그 후로도 사도 바울과 시역했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1. 옛 틀과 옛 체질을 벗어버리기 이전의 옛 사람 바요나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 시몬이라는 뜻은 '소리를 듣다'이다. 많은 책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이 어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실은 시몬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온다. '세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성과 후대를 양육하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들으라' 라는 말이 '사마'이다. 이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시몬이 되는 것이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 것이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인 것이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다. '철수나' 순회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갈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 실천하는가. 이스라엘사람은 잘 실천하는가?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한다. 그러니까 갈대처럼 말씀 듣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다. 딴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시몬이라는 말에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흔들리다, 듣지 않다, 순종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변화되지 전의 베드로는 자꾸만 흔들렸다. 그 모습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게바'는 아람어로 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어로는 베드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성경에는 베드로사건이 많은데,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어느 정도 나섰으면, 자기가 말한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한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것을 '헛소리'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헛소리가 있다. 마태복을 16장 16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완벽한 말이지만 베드로입장에서는 완벽한 헛소리다. 뜻도 의미도 모르는 말이다. 진리이지만 완전히 헛소리이다. '이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의미도 모르고 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나중에 가서 진짜 고백으로 바뀐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강고히 대담하게 이야기한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약간 헛소리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정확한 여러분의 신앙고백,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는다. 베드로를 연구를 했더니 정말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허점을 다 가지고 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아서 찾다가 '일부분은 베드로전서로 이야기 하고 나머지는 후서에 이야기 해야지' 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 (1) 베드로의 옛 모습이다. 벗어내지 못한 옛 틀인 것이다.

교육수준이나 학문이 높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표현이 되었다. 이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학벌인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글을 잘 모르셨다. 먼 친척 할머니는 눈이 참 좋으시다. 눈이 아주 밝으신데 글씨를 모르신다. 머스를 탈 때 번호를 못 보신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 머스 몇 번이지?' 하시더라. 우리 할머니도 살아남는 방법을 다 아시는구나. 지혜는 있으시구나 했다.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하셨는데 계산이 다 맞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계산법을 창조하셔서 다 맞추신다.(웃음)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 상처와 이쁨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런 것이다. 내가 아는 분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모든 행동을 할 때 열등감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일한다. 그 열등감을 메우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한다. 저 때 저 말 안 하면 훨씬 더 인격적인데 아는 척한다. 열등감 때 문이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 버리기를 바란다. 자꾸 아는 척, 잘난 척하지 말고 나서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가 정말 나설 때는 나서야 한다. 너무 안 나서는 것도 교만이다.
- (2) 직업도 어부로 대단하지 못했다.

마태복을 4장 18절에 보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나온다. 어부출신이다.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배도 큰 배가 아니었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었다. 베드로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그 날 잡아서 그 날 먹는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경은 그렇다. 그러다보니 성격이나 인격적인 면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 베드로는 신중함이 없고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에 빠 죽으니까 '나 살려주세요.'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걸던지 물에 빠지던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저속한 말로 '쪽팔리는 모습'인 것이다. 마태복을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좀 침착한 모습이다. 이렇게 즉흥적이었다. 베드로는 책임감도 없고, 신중함도 없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다 가지고 있었다.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시대적인 인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연약함, 단점이 많이 있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예배에 성공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응답을 다 받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요지이다. 마태복을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어서 로마사람들에게, 유대사람에게 잡혀갈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여러분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 저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했을 텐데,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세 번이가 부인하고 버렸다. 성격도 급하고 철이 없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급했는가. 요한도 성격이 급했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속하는 열기가 있었다. 요한복을 18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 그 중에 중 하나가 말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취했다. 그러니까 귀가 잘랐다. 사실은 목을 치려고 했던 것 같다. 속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을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꼬라 속할 때는 용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기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골 뜰에 있었는데,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저 자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한다. 마태복을 26장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한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얼마나 업, 다운이 심한지 비정상적이고 정신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아겟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들을 정도로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성경찬미를 받고 복음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체질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방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사도바울이 꾸짖음을 하는 것이다. '게바'라는 이름도 바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역으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고 나온다. 어떻게 보면 전도사 수준밖에 안되는 사도 바울이 어른 목사님에게 꾸짖람하는 격인 것이다. 밑의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베드로는 철도 없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기억력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물에 뛰어들 때는 웃을 것 뛰어들이지 않는다. 베드로는 웃을 단정히 입고 물에 뛰어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의복을 정제하고 뛰어든다. 연구하다가 너무나도 단점이 많아서 나중에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는 단점, 약점,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경솔했던 사람이 신중한 사람으로 무시당했던 사람이 존경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난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 흐른 후에, 네로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이러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소망과 위로를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멋있게 죽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자. 천국에 소망을 두자 그곳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그 메시지를 보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인 것이다.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변화될 줄을 믿는다.

2. 새롭게 변화된 사도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초대교회에게 전했을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한다.

- (1)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아시고 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신학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영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알았는가.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어보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도 당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계획하시고 시간표에 따라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 (2) 1장 3절에 보면,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에 알지도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의미도 모르고 고백한 수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복음이 완전 정리된 것이다. 처음에는 남들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따라하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시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12가

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을 믿는다. 그래야 중인이 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다. 여러분이 이러한 깨달음과,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한다.

② 1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이 받을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폼박받고 고문당하고 사자에게 뜯겨서 붙어 태워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사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어떤 고난과 폼박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승리해야 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날처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셔 믿은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직장, 가족, 민족, 자녀도 잃어버린다. 생명이 없어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의 결단과 한 가지이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 예수 믿고 이것도 잡히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위로받고 그 정도 수준이다. 원래 그것이 아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복 받고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다른 것에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문 닫고 부도날 때에 우리만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원래 초대교회처럼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우리가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까지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③ 1장 6절-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폼박을 받지만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황제의 폼박과 죽음을 앞에서도 고된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 받고 사자에 뜯겨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 내 남편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내 삼촌이 우리 성도들이 책역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 천국에서 만날 텐데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던 것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수준이 되기를 바란다. 작은 문제로 인상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영혼까지 팔아먹는 우리의 수준이다. 모든 신앙도 날려버린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한다.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의 소망, 초대교회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내용을, 전도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1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②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다. '교회 오실 때에 그냥 멍하게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받고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배고플 때 젖을 먹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갈급한 상태에서 교회에 와야 한다. 그러면 절대 졸리지 않는다.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나는 안다.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세상의 어떤 즐거운 일보다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 비교할 수 없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 있으면 행복시켜줘라. 목사 그만하고 그것하게(웃음) 아니다. 결국은 땅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는다. 몸, 영혼 해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일밖에 없다.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얻을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 전체가 풀려지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① 2장 18절이다.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때 당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로마사람, 유대인, 귀족, 노예, 종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환들이 법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노예 해방운동하지 않고 노예로 있을 때 주인으로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과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 날의 직장생활이라고 적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생활할 때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7명의 램판들이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느헤미야, 모르드개, 에스더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아주 약한 왕이었는데 그들을 도와 주면서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

② 2장 19절은 중요한 내용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그래요?' 하는 태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 할 필요 없다.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하면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해.' 할 필요 없다. 여러분도 다 남의 말을 하지 않는가. 한국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대통령이다.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 울은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싫을 수도 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도 많아서 여러분을 신경 쓸 시간도 없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도 내 문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줘야 한다.

(3) 3장 7절에 보면 부부관계 이야기를 한다.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남편들이 이와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21세기인 지금은 더욱 가정과 부부와 자매에 대한 공부 필요하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저 남편은 왜 저러지? 저 여자는 왜 저러지?' 공부해야 하고 이해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평생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 못하고 여자도 평생 남자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평행선이 되어서 한 번도 접점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공부를 해야 한다. 상담도 해야 한다. 이 시대는 그렇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한다.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한다.

(4) 5장 2절-3절에 목사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한다.

또한 목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겠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분이 되라.'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야 한다. 목회자, 교역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5) 5장 5-6절에는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한다.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젊은이들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한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하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르쳐주고 하고 지적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베드로처럼 못됐어도 존경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진실로 비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평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신앙생활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강대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대언자로 어떤 말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려갔을 때는 항상 겸손하게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님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 그 말씀이 정말로 필요할 사람이 있다. 나한테는 안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육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맞아하는 사람도 있다. 저 말은 나한테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안에서는 항상 겸손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목회자들은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되, 사랑하면 바른 말을 하게 된다. 성도들이 요새는 상처받는 말을 안 한다. 다른 교회 갈까봐.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한다. 이 메시지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축원한다.

결론에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절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성도들은 이 5개의 요절을 묵상하면서 암송까지 했으면 좋겠다.

1.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믿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거듭나게 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적인 변화도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2.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다. 여기서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두는 தே사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아름다운 덕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3.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과 복음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영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든 면에,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하는 것에 도전해야 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예수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원수까지도 용서하지?' 그 이유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 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이다. 그 분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주인이 되기를 축원한다. 운운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불신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상처입지 않겠는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는 운운과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최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셨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4.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5.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문제와 시련과 영적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이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바닷가에서 상어가 사람을 물때는 피 냄새를 몇 km 밖에서도 맡는다고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근신, 염려, 걱정하면 멀리 있던 사단도 그 냄새를 맡고 와서 여러분을 물올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미세먼지처럼 가만히 있어도 염려걱정 들어온다.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한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는다.

끝으로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새 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옛 모습, 아니 지금의 모습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고 어떤 부분은 베드로보다 더 못한 부분도 많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위기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고, 그러한 소중한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약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237개국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주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